



코스피	2176.11 (0.00)	코스닥	748.36 (0.00)
금리 (미국 3년)	1.80 (+0.01)	환율 (원-달러)	1137.30 (+2.50) (15일)



[뉴스]
교수는 없고
직원·원장 다두고
중부기술원 '내분'
02

'반도체 제외 땀 영업이익 11% 감소' 우울한 성적표 받은 상장사

車·조선 등 A등급 40여사 신용강등 후폭풍 우려

A급 이상 상장사 88개사
신용등급 변동 요인 도달

보험·건설·IT 실적 개선
기계 등 대부분 업종 악화

어닝시즌(실적시즌)이 종착역에 다다른 가운데 국내 주요 상장사가 우울한 실적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업황 부진과 과당 경쟁에 내몰린 기업들은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7일 신한금융투자 추정에 따르면 신용등급 A급 이상(안정적 전망) 상장사 가운데 88개사가 신용등급 변동요인에 도달했다. 이 가운데 40곳 이상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위해 고금리를 제시해야 하고, 이도 안 되면 은행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부실 기업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특히 빛 더미에 앉은 한계기업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 영업이익 전망 3개월 전보다 -19.3% 감소

재벌닷컴이 지난달까지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상위 100대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167조

(상장사 231곳 이익 예상치)
(단위: 억원)

영업이익	
2017년	178조4941
2018년	118조1265
2019년	163조4903
순이익	
2017년	127조156
2018년	133조1385
2019년	115조9609

*코스피 177개, 코스닥 54개 종목 기준
자료:신한금융투자

2360억원으로 확인됐다. 2017년(165조7850억원)보다 0.9% 늘어난 사상 최대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2017년보다 영업이익이 11% 줄어든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보험, 건설, IT 업체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반면, 대부분의 업종은 악화됐다. 에너지, 기계, 조선, 유틸리티는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상각전 영업이익(EBITDA) 추정치도 지난 2월 15일 기준 2017년 말 추정치 대비 약 28조 9000억원 감소했다. 2019년 추정치는 약 60조2000억원 줄었다. 업종별로는 미디어, IT, 반도체 중심으로 추정치가 개선을 보이는 반면, 디스플레이와 유틸리티, 자

동차 업종의 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기업 부진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란 점이다. 해외 투자은행(IB) 9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연 2.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 2.6%다.

노무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68.5%) 등 자본재 수입(-21.3%)이 감소해 앞으로 기업투자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단기 업황 전망이 우호적인 국내 업종으로 메모리반도체를, 비우호적인 업종으로 자동차·조선·유통·건설을 꼽았다. 유건 한신평 기업평가본부장은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을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매출 증가 지표를 보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부각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이나 외부환경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향후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보다는 나빠지는 업종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적잖은 기업이 낙인이 찍혀 있다.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기업 등급전망은 긍정적 24개, 부정적

35개다. 또한 등급검토 대상은 상향이 4개, 하향 8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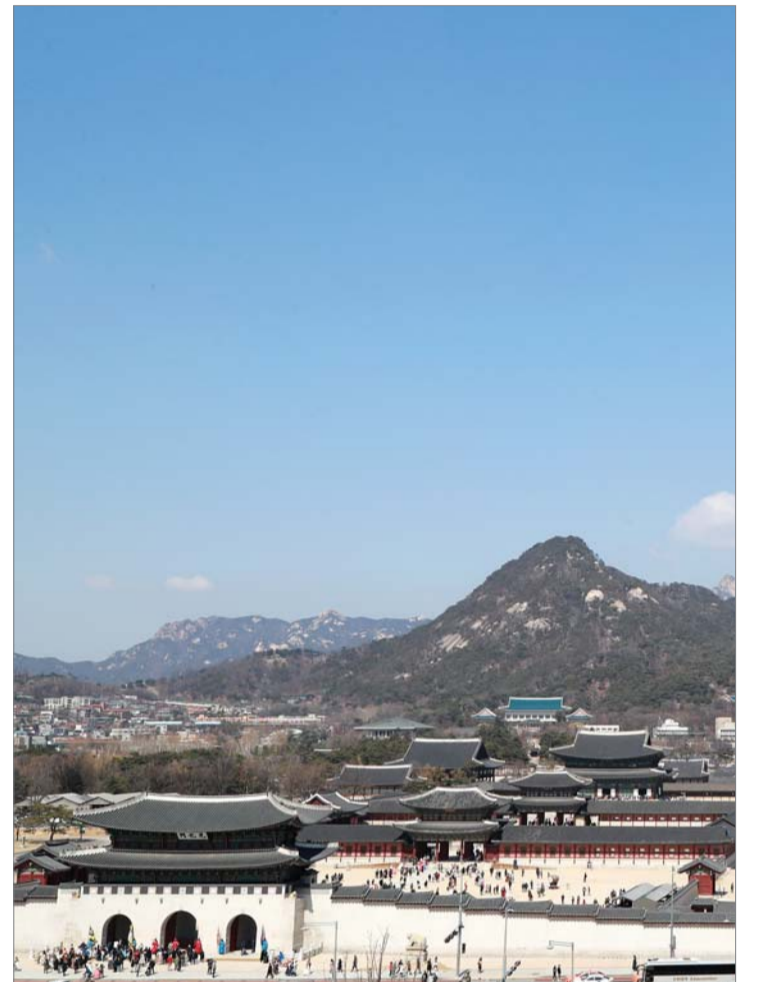
우선 긍정적 또는 상향 검토 대상은 화학업종이 5개, 건설사가 4개, 기계업종이 4개다. 반면, 부정적 또는 하향 검토는 자동차 및 부품이 6개, 여전사가 4개, 전자재업체가 4개, 유통업체가 2개, 디스플레이업체가 2개다.

◆ 등급변동 도달 업체 88개

한국경제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년 한국경제 대전망"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동반한 물가 상승), 중기적으로 고실업,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재정 건전성의 트릴레마(trilemma·동시에 세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한 것은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 측면에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출도 빨간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줄어든 74억2100만달러로 조사됐다. 같은 달 수출은 5.9% 감소한 463억3000만달러로 조사됐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서울 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화창한 날씨를 보인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 하늘이 푸른 빛을 띠고 있다. /연일뉴스

초단시간 노동자 11% 증가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줄어

노동부 '노동리뷰' 보고서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영세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쪼개기 알바'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셈이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000명으로, 2017년의 67만9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였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000명)이었고 공공행정(2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000명, 5000명 감소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000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000명, 2000명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000명, 남성이 9000명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임동빈 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임 연구원은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SK하이닉스, 파운드리로 반도체 불황 뚫는다

자회사 시스템IC 통해
차세대 메모리 경쟁력 강화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위기에 대응해 돌파구를 찾아나서고 있다. 비메모리 육성과 함께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더 쏟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올 상반기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 중이다.

당초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1조원 초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2분기에는 1조원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 영향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올 들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내려앉고 있다. 재고 소진이 느린데다, 신형 CPU 출시도 하반기로 미뤄진 탓이다.

경쟁사와 비교해도 SK하이닉스는 충격이 크다. 사업구조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체에만 집중된 까닭이다. 2018년 매출액 기준 D램이 80%, 낸드는 18.5%나 된다. 특히 낸드 부문 부진이 심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낸드 부문 영업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SK하이닉스는 2017년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IC을 설립하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시스템IC은 CMOS 이미지센서 제작을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공장은 중국 장쑤성, 현지 투자사 우시산업집단과 함께 만들었다. 고객사 대부분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공장을 중국에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홍콩에 스카이하이메모리도 세웠다. 미국 업체 사이프레스와 각각 60%, 40% 출자했다. 낸드플래시 패키징을 주력으로 기술 개발까지 맡을 예정이어서 SK하이닉스와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파운드리 전략은 삼성전자와는 다르다. 삼성전자가 초

격차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시스템IC은 앞선 기술력으로 수율을 높여 더 합리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시스템IC 매각설도 나왔다.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에 더 주력하고 있는데다, 단독으로 공장을 만들기보다는 합작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성은 떨어진다. 파운드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IC 실적도 나쁘지 않아서다. 지난해 홍콩에 만든 SK반도체 투자회사도 SK 최태원 회장이 시스템IC 발전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GF) 인수도 이미 무산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시스템IC과 GF 사업 분야가 전혀 다른 이유가 가장 크다. GF는 최근 싱가포르 200mm 웨퍼를 매각하는 등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